

# “첫 누아르 도전...주인공처럼 외유내강 이미지 연상되길”

### MBC 새 금토드라마 ‘빅마우스’서 주연 임윤아 이종석과 특권층 민낯 파헤치는 간호사·변호사 부부 연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음모로 얼룩진 특권층의 민낯을 파헤쳐 가는 MBC 새 금토드라마 ‘빅마우스’가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빅마우스’ 주연을 맡은 임윤아(사진)는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누아르 장르는 처음 도전해보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빅마우스’는 승률 10%의 삼류 변호사 박창호(이종석 분)가 우연한 사건에 휘말려 천재사기꾼 빅마우스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간호사 고미호 역을 맡은 임윤아는 “지혜롭고, 능동적이고, 내면이 단단한 인물”이라며 “미호가 가진 외유내강 이미지가 잘 비쳐서 저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연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호는 혼자 있을 때만 눈물을 보일 정도로 평소 감정을 억누르고 삼키면서 지내는데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고미호의 남편을 연기한 이종석도 “박창호라는 배역 자체가 어렵고 촬영하기 힘든 장면이 많아 무릎부상까지 있었다”며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있는 캐릭터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2019년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을 마지막으로 3년의 공백기를 가진 이종석은 “오랜만에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돼 굉장히 떨리고 긴장된다”며 “친한 친구이자 존경하는 감독님을 믿고 결이 새로운 작품에 도전

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오창환 PD는 이종석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비롯해 ‘호텔 델루나’, ‘닥터스’, ‘스타트업’ 등 인기 로맨스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오 PD는 “처음 해보는 장르라서 촬영, 조명, 편집 방법 등에 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르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몸도 힘들고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아 배우들이 고생이 많았다”며 “직관적으로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을 캐스팅했는데 예상보다 다들 잘 해주셨다”고 말했다.

드라마에는 박창호와 고미호 외에도 각자 야망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해 팽팽한 대립 구도를 만든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검사 출신 시장 최도하를 연기한 김주현은 “마치 누군가는 외줄을 타고, 다른 한 명은 표창을 던지고, 그 옆에서는 사자를 조련시키는 서커스를 보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무더위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도하를 견제하는 우정일보 사장 공지훈으로 분한 양경원은 “감독님이 배우를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최대한 배려해주셔서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다”고 말했고, 최도하의 부인 현주희로 분한 옥자연도 “힘찬 현장에서 감독님이 항상 웃고 계시어서, 힘들지만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촬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블랙핑크, 돌아온다

### 9월 2집 발표...10월부터 월드투어

그들 블랙핑크(사진)가 약 1년 10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컴백 일정을 안내하는 영상을 올린 뒤 “블랙핑크가 9월에 정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핑크가 정규 음반을 내놓는 건 2020년 10월 발표한 정규 1집 ‘더 앨범’(THE ALBUM)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블랙핑크는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아이스크림’(Ice Cream) 등 두 곡을 먼저 공개한 이후 정규 1집을 선보인 바 있다.

새 앨범 역시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YG 관계자는 “이번 컴백 프로젝트명은 ‘본 핑크’(BORN PINK)로, 결코 평범하지 않고 치명적인 아우라를 뽐낼 블랙핑크의 정체성이 함축됐다”며 “사실상 더블 타이틀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8월 선공개곡’, ‘9월 앨범 릴리스(발매)’, ‘10월 월드투어 시작’ 등 자막으로 향후 일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 ‘괴짜’로 돌아온 지코 “‘흥’ 대표하는 아티스트 되겠다”

### 2년 공백 깨고 미니 4집 발표 “날 것 그대로의 지코 담아”

“이번 음반에는 날 것 그대로의 지코가 담겨 있습니다.”

가수 지코가 2020년 7월 ‘랜덤 박스’(RANDOM BOX) 이후 약 2년여 만에 돌아왔다. 그는 “스스로 음악을 만들고 혼자 듣다 보니 좀 더 예전 지코의 모습에 가까운 음악이 나왔다”고 했다.

지코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미니 4집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2년간의 공백기를 깨고 ‘괴짜’로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그는 2년간의 공백기 동안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코는 “내 안에 쌓여 있던 많은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운 제 모습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굉장히 개운한 상태이고 창작하기 아주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음원들이 추가되고, (음원들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 작업했다”며 신보를 발매한 소감을 밝혔다.

‘그로운 애스 키드’에는 타이틀곡 ‘괴짜’(Freak)를 포함해 ‘서울 드리프트’(SEOUL DRIFT), ‘트래시 토크’(Trash Talk), ‘오엠지 프리스타일’(OMZ freestyle), ‘녹터널 애니멀스’(Nocturnal animals) 등 5곡이 수록됐다.

지코는 타이틀곡 ‘괴짜’에 대해서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다”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의 거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코는 신보 발표에 맞춰 지난달 27일 본격적인 컴백 활동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신보 발표를 이틀 앞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부득이하게 음반을 먼저 발매한 뒤 예정됐던 외부 활동은 모두 취소했다.

그는 “활동을 앞두고 확진 소식을 접했을 때 너무 아쉬웠다”며 “음반 발매에 맞춰 바로바로 제공



‘괴짜’로 돌아온 지코

될 콘텐츠가 많이 준비됐는데 그걸 제때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웠다”고 밝혔다.

지코는 자신이 준비 중인 KZ엔터테인먼트 새 보이그룹에 대해서도 귀찮았다.

그는 “보이그룹을 제작하는 과정의 완성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내년을 넘

기지 않는 시점에서 (보이그룹을) 론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코는 “‘흥’이라는 단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치열한 여름 가요계에 다시 도전장을 던진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 tvN ‘일타 스캔들’

### 전도연·정경호 주연



전도연(왼쪽), 정경호.

tvN은 배우 전도연과 정경호가 내년 상반기 방영 예정인 새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일타 스캔들’은 치열한 입시 현장에 뒤늦게 뛰어들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과 ‘일타강사’ 최치열의 로맨스 스캔들을 그린 작품이다.

전도연이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자 반찬가게 사장 남행선을, 정경호가 예민하고 까칠한 일타강사 최치열을 연기한다. tvN ‘고교처세왕’, ‘오 나의 귀신님’을 함께 만든 유재원 PD와 양희승 작가가 연출과 집필을 맡았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